〈2020 디지털 인문학 대회 발표자료〉 **2020**년 **10**월 **30**일

비대면 인문학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활용 사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과를 중심으로〕

류인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발표자 소개

http://redint.info

안녕하세요, 류인태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와 관련된 여러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력, 경력, 저술 등 저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공간

http://dh.aks.ac.kr/~red/wiki/index.php

발표자가 그동안 진행해 온 디지털 인문학 강의에 대한 기본정보,
강의 목표, 강의 방법, 관련 자료, 평가 기준, 강의 계획, 수강생 등
여러 강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비대면 환경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

3. 데이터로 지식을 표현하고 공유한다는 것

첫 번째 이야기

비대면 환경의 특성은 무엇인가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문 교육 형식의 요구

컴퓨터 기술과 웹 환경의 발달로 인해 초연결·초지식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일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자 1인의 지도하에 도제식으로 진행되는 인문지식의 전통적 교육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일 분야의 전문적 이해에 대한 요구보다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종합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확장성과 연결 가능성에 착안해,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기 쉽고 한 곳에만 고립되기 쉬운 인문 지식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다방면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미 현 시점에서도 당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학술 역량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의 도래

지식 전달에 있어서 집중력 저하의 문제 :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 전달 환경의 한계 발생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의 어려움 :
대면 환경에서는 가능했던 직접적 피드백이 어려워짐

디지털 기반의 강의 도구 수요 발생 :
어떠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증대

시험과 평가의 어려움 :
비대면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음

생각해 볼 점: 교수자를 통해 얻는 앎 vs 미디어를 통해 얻는 앎

지식(knowledge)

작업(work)

수동적(passive)

협소함(small)

특수성(particularity)

연역적 체계(deduction)

결론(result)

정보(information)

놀이(play)

능동적(active)

방대함(big)

보편성(universality)

귀납적 경험(in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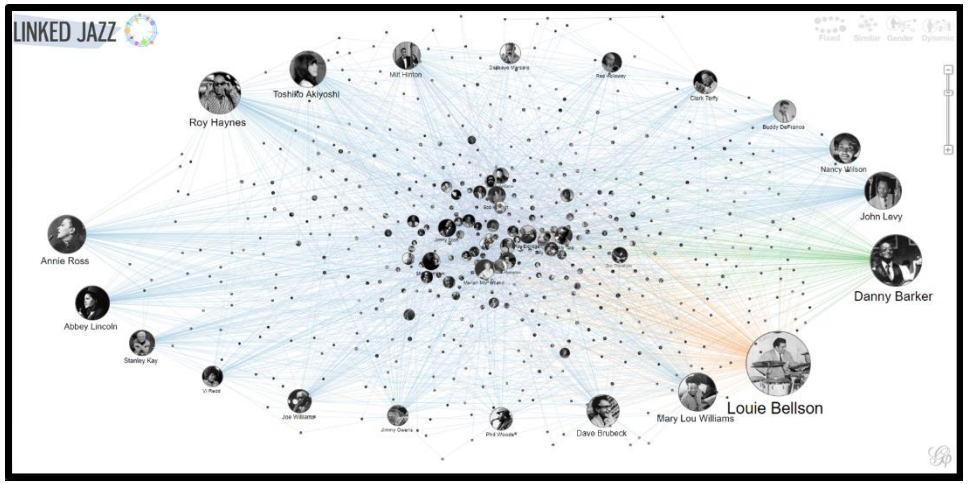
과정(process)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비대면 환경에서 가능한가

두 번째 이야기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

데이터 편찬: 인문 지식의 자유로운 '표현'과 '공유'를 가능케 하는 매개 활동



https://linkedjazz.org/network/

LinkedJazz와 같은 인문 데이터 편찬-공유-표현의 사례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능동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매개함으로써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학술 훈련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사회 활동으로서 인문 지식 편찬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에 대한 오해?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방면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인문지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설계하고 편찬하는 과정은
직접적인 코딩 실습이나 그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지식을 다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위키(Wiki): 인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협업 소프트웨어

Wiki는 위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위키 엔진, 위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불리는 위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웹 브라우저에서 마크업 언어인 위키 문법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위키 문서는 일반적으로 위키 문법(Wiki Syntax)이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마크업 언어는 텍스트에 태그(Tag) 등을 이용해 문서의 형식과 서식을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위키 문법은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언어인 HTML보다 간편한 마크업 언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위키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문서 편집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https://www.mediawiki.org/wiki/MediaWiki/ko

위키(Wiki)를 인문학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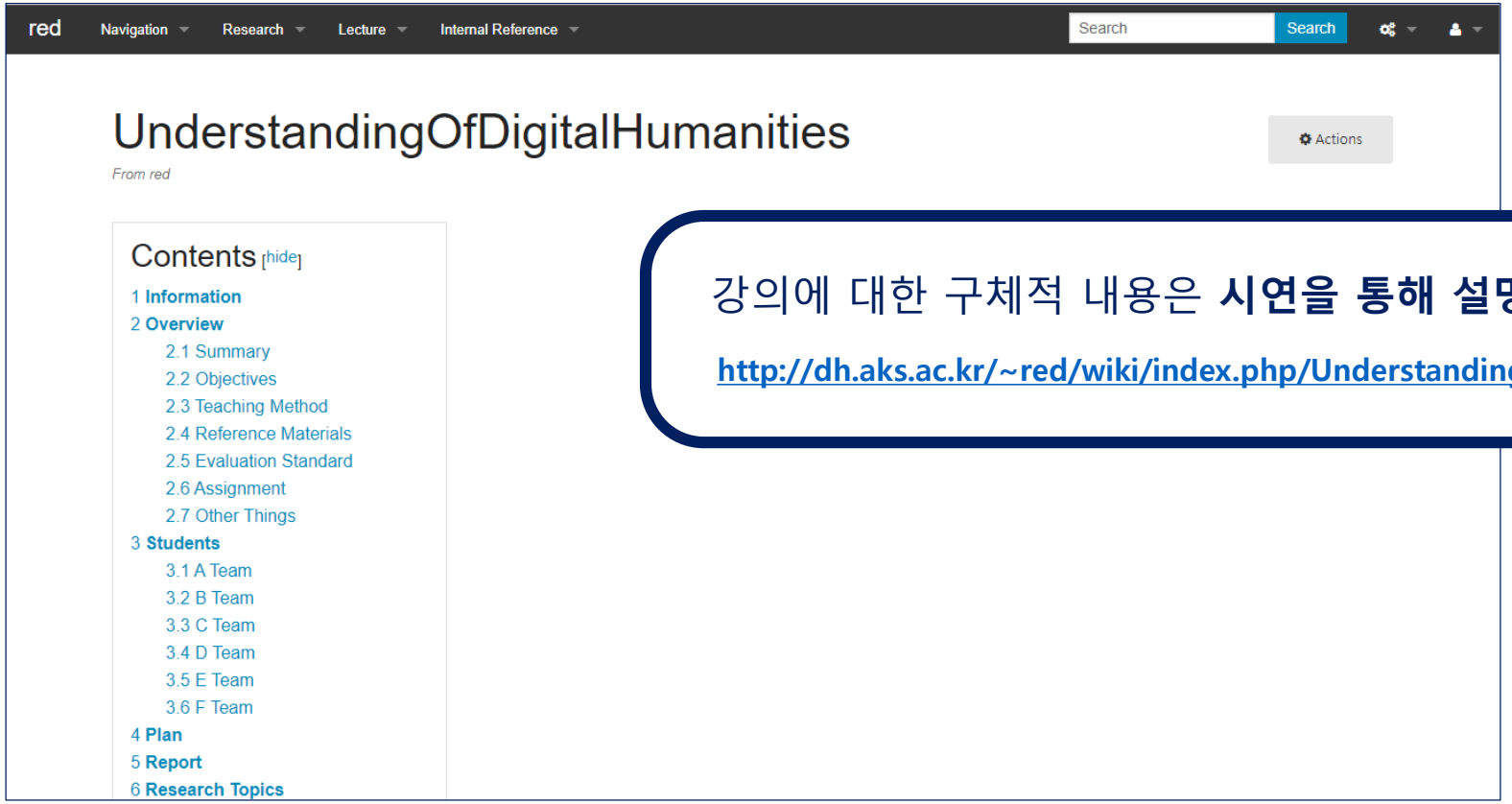
인문정보학 위키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한성대학교 미디어위키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중국학 위키백과 Sino Wiki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redint의 디지털 인문학 위키 강의실
〔인문정보학 박사 류인태의 온라인 강의공간〕

위키(Wiki)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비대면 강의 사례 소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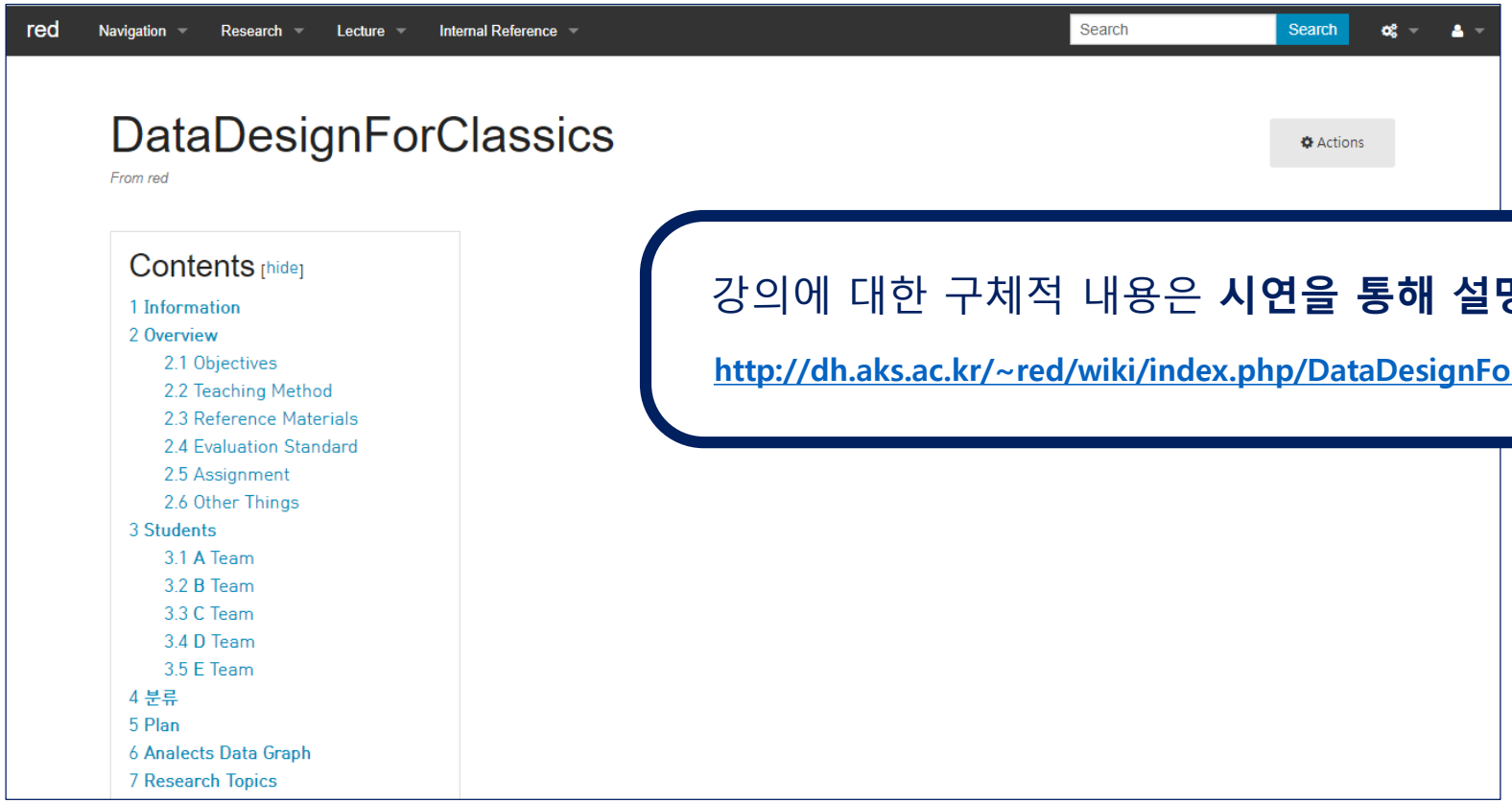
강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연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dh.aks.ac.kr/~red/wiki/index.php/UnderstandingOfDigitalHumanities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20-1학기 전공선택 강의

〔디지털 인문학의 이해〕

위키(Wiki)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비대면 강의 사례 소개2



강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연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dh.aks.ac.kr/~red/wiki/index.php/DataDesignForClassics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20-2학기 전공선택 강의

〔고전탐구세미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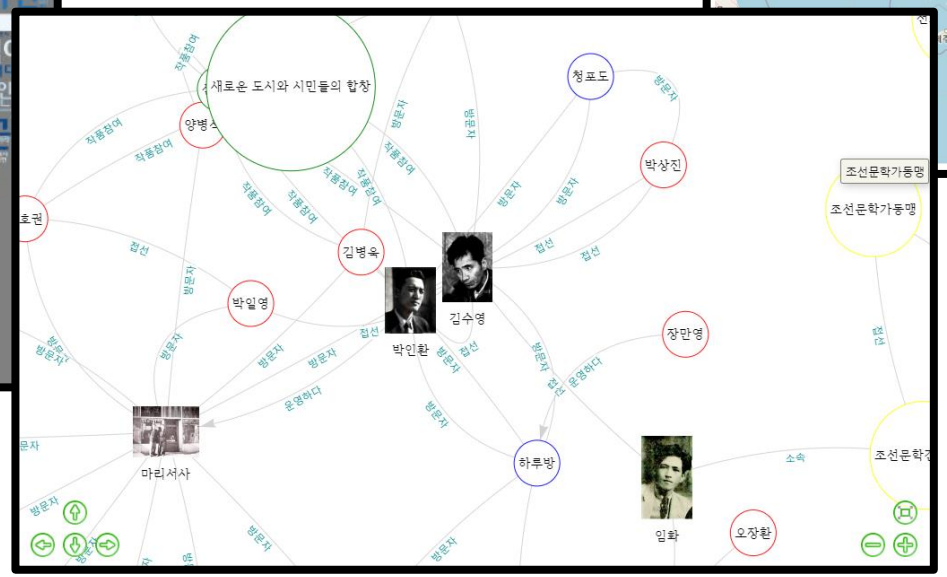
세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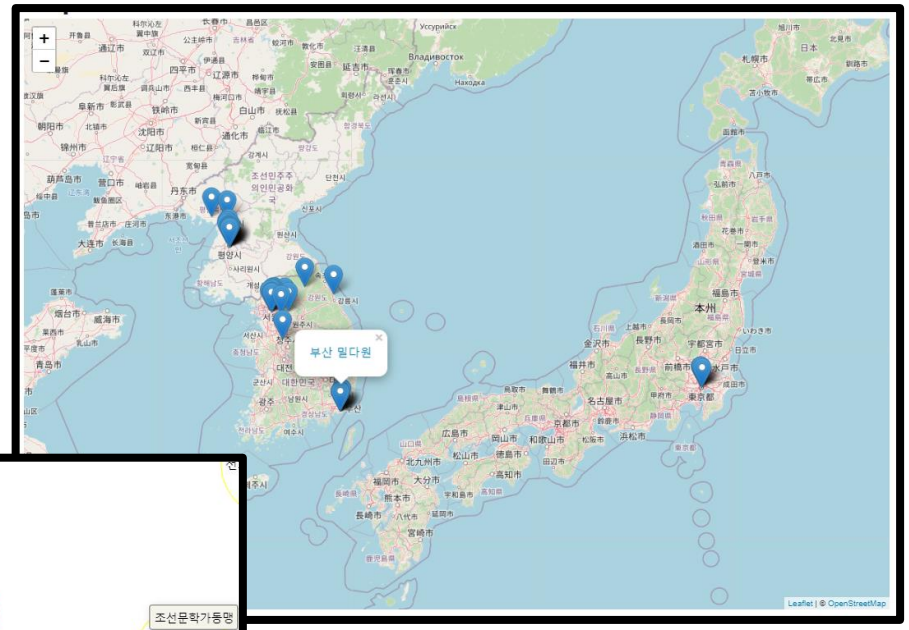
데이터로 지식을 표현하고 공유한다는 것

지식을 조직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구성하는 자료를 이해하기1: 표현

워드클라우드 구현을 통한
텍스트 분석

시맨틱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 관계망 편찬





공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전자지도 구축

지식을 조직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구성하는 자료를 이해하기2: 공유

재(齋)를 사우(四友)라고 이름지은 것은 왜냐? 허자(許子 저자 자신을 가리킴)의 벗하는 자가 셋인데, 허자가 그 중 하나를 차지하고 보니, 아울러 넷이 된 셈이다. 세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날의 선비는 아니고 옛사람이다. 허자는 성격이 소탈하고 호탕하여 세상과는 잘 맞지 않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꾸짖고 떼지어 배척하므로, 문에 찾아오는 이가 없고 나가도 더불어 뜻에 맞는 곳이 없다. 그래서 탄식하며,

"벗이란 오륜(五倫)의 하나인데 나만 홀로 갖지 못했으니 어찌 심히 수치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했다. 물러나와 생각건대, 온 세상이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사귀지 않으니 내가 어디로 가서 벗을 구할 것인가. 마지 못해 옛사람 중에서 사귈 만한 이를 가려 벗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는 진(晉) 나라의 처사(處士) 도원량(陶元亮)이다. 그는 한가하고 고요하며 평탄하고 소광(疏曠)하여 세상일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고 가난을 편히 여기며 천명을 즐기다가 승화 귀진(乘化歸盡)하니, 맑은 풍모와 빼어난 절개는 아득하여 잡을 길이 없다. 나는 몹시 그를 사모하나, 그의 경지에는 미칠 수가 없다. 그 다음은 당(唐) 나라 한림(翰林) 이태백(李太白)이다. 그는 비범하고 호탕하여 팔극(八極)을 좁다 하고 귀인들을 개미 보듯하며 스스로 산수간에 방랑하였으니, 내가 부러워하여 따라 가려고 애쓰는 처지이다.

또 그 다음은 송(宋) 나라 학사(學士) 소자첨(蘇子瞻)이다. 그는 허심탄회하여 남과 경계를 두지 않으므로 현명한 이나 어리석은 이, 귀한 이나 천한 이할 것 없이 모두 그와 더불어 즐기니, 유하혜(柳下惠)의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본받고자 하나 못하는 처지이다.

이 세 분의 군자는 문장이 천고(千古)에 떨쳐 빛나지만, 내 보기에는 모두 그들에게는 여사(餘事)였다. 그러므로 내가 취하는 바는 전자에 있지 후자에 있지 않다. 만약 이 세 분 군자를 벗삼는다 할 것 같으면, 어찌 속인들과 함께 어깨를 포개고 옷소매를 맞대며, 사분사분 귓속말하며 스스로 우도(友道)를 삼을 것인가.

나는 이정(李楨)에게 명하여 세 군자의 상을 꼭 같이 그리게 하고, 이 초상에 찬(贊)을 짓고 석봉(石峯)으로 하여금 해무는 곳마다 반드시 좌석 한쪽에 걸어놓으니 세 군자가 엄연히 서로 대하여 권형(權衡)을 평정(評定)하며 마치 함께 인기척 소리를 듣는 듯하여 쓸쓸히 지내는 생활이 괴로운 것을 자못 알지 못하였다. 이러고 보니 나는 비로소 오륜을 어 사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다.

아, 나는 확실히 글을 못하는 자라 세 분 군자의 여사에도 능하지 못하지만 성격마저 탄솔(坦率)하고 망용(妄庸)하여 지는 못한다. 단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모하여 벗으로 삼고자 하는 정성만은 신명(神明)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 암리에 그분들과 합치되었다. 도연명이 팽택(彭澤)의 영(令)이 되어 80일 만에 관직을 벗었는데, 나는 세 번이나 태수 득 배척받아 쫓겨났다. 이태백은 심양(潯陽)과 야랑(夜郎)으로 가고 소동파는 대옥(臺獄)과 황강(黃岡)으로 갔었다. 만, 나는 죄를 지어 형틀에 묶이고 볼기맞는 고문을 받은 뒤 남쪽으로 옮겨지니, 아마도 조물주가 희롱하여 그 곤액 재주와 성품만은 갑자기 옮겨질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의 복을 입어, 혹시라도 전야로 돌아가도록 허락된다면, 관동(關東) 지방은 나의 옛 터전이라 그 경치며 풍물이 (采石山)과 견줄 만하고, 백성은 근실하고 땅은 비옥하여 또한 중국의 상숙현(常熟縣)과 양선현(陽羨縣)보다 못지 않 호(鑑湖) 가에서 초복(初服) 입던 신세로 돌아간다면, 어찌 인간 세상의 한가지 즐거운 일로 되지 않겠는가. 저 세 분 고 유쾌하게 여기실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은 한적하고 외져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으며, 오동나무가 뜰에 그늘을 뒤에 종종히 줄지어 심어져 있으니, 그 그윽하고 고요함을 즐기면서 북쪽 창에다 세 군자의 초상을 펴놓고 분향하면서 을 사우재(四友齋)라 하고 인하여 그 연유를 위와 같이 기록해둔다. 신해년(1611, 광해군3) 2월 사일(社日)에 쓰다.

하이퍼텍스트 페이지 작성을 통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 공유

데이터 시트 공유를 통한 협업적 성격의 데이터 편찬

Place-Description

정리 시트 바로가기>

Place1	Place2	Latitued-Longitude	Description
북한▼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리면 빙장리	39.146414342306926, 125.65819479727567	1915년 3월 26일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이후 일제의 간섭을 피해 1943년부터 1945년 9월까지 고향에 머무른다.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리면 천서리	39.148014090016645, 125.66730838168604	황순원의 외가 마을이자 「목넘이마을의 개」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황순원이 만 4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1년 6개월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면서 어머니 장찬봉과 단둘이 시골집에서 고독하게 지냈다.
	평양	39.039278, 125.762528	1921년 만 6세 때 가족 전체가 평양으로 이사했다. 1945년 9월부터 다시 평양에 머물렀으나 공산 치하에서 지주 계급으로 몰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1946년에 가족들과 함께 월남한다.
	평양 숭덕소학교	39.198343, 125.696870	만 8세 때 입학했으며, 유복한 환경에서 예체능 교육까지 따로 받으며 자라났다. 체중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때부터 일흔이 넘을 때까지 소주를 마셨으며, 그 뒤로 몸이 쇠하여서 타계할 때까지 매일 화이트와인 '마주앙'을 마셨다.
	정주 오산중학교	39.697722, 125.206722	1929년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재학하였다. 여기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 남강 이승훈은 그의 단편소설 「아버지」의 영감이 되었다.
	평양 숭실중학교	39.002579, 125.746633	오산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전입학하였다. 1931년 「나의 꿈」이라는 시를 통해 등단하였다. 1934년 졸업하였다.
	평양경찰서	39.080448, 125.767993	와세다 제2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여름 방학 때 귀향했다가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피하려고 동경에서 시집을 발간했다'는 사유로 평양경찰서에서 29일간 구류를 살았다.
	모란봉	39.048914, 125.754427	「노새」 작중 배경
	북새거리	39.036109, 125.749708	「노새」 작중 배경
	서평양역	39.052971, 125.726270	「노새」 작중 배경
	대동문	39.022666, 125.756802	「노새」 작중 배경

온톨로지 설계를 통한 데이터 편찬 체계 공유

소설 원미동사람들 등장인물 관계도.lst

From red

```
#Project
hl 소설 원미동사람들 등장인물 관계도.lst

#Class
장소        red         circle
인물        green       circle
업장        blue        circle
소제목      Orange      square
모임        yellow      circle

#Relation
resident        의_주민이다        arrow   2
family          의_가족이다        line    2
alliance        동맹관계이다       line    2
share           같은_건물에_거주한다  arrow   2
competitive     경쟁관계이다       line    2
married         부부이다           line    2
couple          애인이다           arrow   2
business        거래한_적_있다     line    2
manage          을_운영하다        arrow   2
friend          와_친구이다        line    2
located         에_소재하다        arrow   2
appear          에_등장하다        arrow   2

#Nodes
원미동          장소    원미동          null    null    1
서울(청계천)    장소    서울(청계천)    null    null    1
반상회          모임    반상회          null    null    1

경호네          인물    경호            null    null    1
김반장          인물    김반장          null    null    1
싱싱_청과물_사내  인물    싱싱_청과물_사내  null    null    1
시내_엄마       인물    시내_엄마       null    null    1
```

데이터: 비대면 환경에서 자발적 놀이, 능동적 참여, 협업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매개

인문학적 문제의식과 해당 방면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있어서 데이터 편찬의 맥락을 적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교수자가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수강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 방식의 교육 모델에서 벗어나 수강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로부터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 있는 매개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소통-학습-평가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교육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가져볼 수 있습니다. 비(非)대면은 반(反)대면도 아니며 무(無)대면도 아닙니다. 대면을 반하는 것으로서, 대면이 없는 것으로서의 극단적 교육 환경이 아니기에, 비대면 교육이 지닐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키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편찬 과정은 인문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